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5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청과의 가족들이 바치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민족사에 짙은 어둠이 드리웠던 99년 전, 주님은 이 교회를 설립하시어 길 잃은 이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식민지의 질곡 속에서 모두가 지향없이 비틀거릴 때 주님은 우리의 품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깨우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넉넉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십시오. 좁아진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십시오. 갈등과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는 세상을 푸른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시94:18-19 ..... 인도자

♠ 교 독 문 ..... 66. 헌당 예배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권미정 집사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다함께

성경봉독 ..... I. 고후11:22-29 ..... 인도자

II. 마6:19-21 정진경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헌신자 김재흥 목사

II. 우리 마음은 어디에?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현신의 찬송 ..... 492.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냉랭한 세상을 따뜻한 정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시간과 더불어 소멸할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거쳐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자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과 깨우침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찬양제	성서의 평화(25)/김기석 목사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기도 : 말은이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하진솔 선생 한상익 장로	인도자 김인걸 권사

5월	영접위원	구성실	이인웅	오진훈	노순옥	문인옥	이건화
	헌금위원	윤석철	김정길	김용길	최숙화	강순배	문인옥

## 여기 우리 돌밖에 없다

▶ 사제가 지나다 보니 어린 소년이 벨을 누르려고 팔짝팔짝 뛰며 애쓰고 있었다. 가엾게도 그 벨이 너무 높았던 것이다. 사제는 다가가서 대신 벨을 눌러 주고는 다정하게 물었다.

“이제 무얼 해야지?”

“죽어라고 뛰어야죠!”

▶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동물에게 친절하게 대해 준 경험이 있으면 발표하라고 했다. 몇 어린이가 감동적인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자기 차례가 되자 토미는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저는요, 어떤 애가 개를 발로 차는 걸 보고 그 애를 발로 차주었어요.”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나, 사랑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나.

▶ 엄마: “네가 부엌에서 그 과자를 훔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니?”

“예.”

“그분께서 내내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도?”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돌밖에 없다. 두 개 꺼내라.’”

▶ 노인들이 외로운 이유는 짐을 함께 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짐만 져야 하기 때문이다.

85세 생일을 맞은 노인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기자는 연세가 비슷한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십사고 청했다.

“글쎄요. 우리 나이에는 잠재 능력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갈되어 버리고 말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또 가능하다면 일을 하여 생활비를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 연세에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나는 이웃에 사는 노인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하고 노인은 예기치 않은 대답을 명랑한 목소리로 하였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 둘 다 치유한다.

▶ 옛날에 아주 엄격한 고행을 하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태양이 하늘에 있을 동안에는 아무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의 고행을 인정이라도 하듯, 근처 산꼭대기에는 환한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별이 비추었다. 그 별이 어째서 거기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고행자가 산에 오르려고 하는데 마을의 어린 소녀가 함께 가고 싶다고 졸랐다.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두 사람은 금방 목이 말랐다. 고행자가 소녀보고 물을 마시라고 했더니 소녀는 함께가 아니면 마시지 않겠다고 우겨댔다. 고행자는 난처했다. 단식을 깨기도 싫었지만 어린애가 목이 타 힘들어하는 것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물을 마셨다. 아이도 따라 마셨다.

고행자는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다. 별이 사라진 하늘을 보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한참 후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산 위에는 두 개의 별이 환히 빛나고 있었다.

▶ 제자가 스승에게 여쭙었다.

“저는 그러잖아도 가진 게 많은데, 방금 엄청난 재산을 상속 받았습시다. 어떻게 사용해야 제 영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오게. 그때 대답해 줘세.”

일주일 후에 스승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야. 친구나 친척들에게 주라고 하면, 자네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테고, 사원에 가져다주라고 하면 사제들의 탐욕만 만족시켜 줄 테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라고 하면, 자선을 베풀었다고 뽐내며 독선죄에 떨어지게 될 테니.”

그래도 대답해 달라고 조르자 스승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자네에게는 도움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테니까.”

## 어머니의 기도

주님,  
저에게 맡겨 주신 아이들은  
당신이 제게 베푸신 커다란 선물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일상에서  
자주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묻는 말에 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저를 공손히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제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내로 참아 주며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리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춘려 방문성 박혜경 김중수 이순정 구명자 김지윤  
 김일랑 이은옥 노용래 차혜심 맹은선 박영희 박홍재 박성수 김애경  
 방 민 박홍엽 안정숙 임원민 임수연 임주빈 최현옥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조관행 홍선희 홍복선 홍순구 안홍숙 오정숙 전세종 임원민  
 임수연 권미숙 황지현 안종일 정현주 박정숙

### 월정헌금:

권미정 김인걸 문영혜 노미향 박범희 박미영 왕수명 이동천 윤성종  
 이민범 이소순 이해동 최윤희 김남종 오복순 정미경 이증자 김순자  
 문홍일 류건형

### 감사헌금:

김금순 김용진 박효선 이해인 권종대 김현주 김훈동 김성한 조영순  
 장성호 유경민 권미숙 박범희 박미영 김용길 최영혜 한상익 박운양  
 황원순 무명1

###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문금석 김훈동 유경순 고영애 김종철 오진훈 노순옥 김영한 이희균  
 전영규 김희은 이동천 (누계: 55,380,000원)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차혜심	연합속회	교회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명순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춘려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희우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교회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최종원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설립99주년** : 오늘로서 우리 교회는 설립 9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100주년을 향한 희망 순례의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걸읍시다.
2. **찬양제** : 오늘 오후 집회는 1시 30분부터 선교회별 찬양제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아름다운 원로** : 5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제주도 여행을 떠납니다. 즐겁고 유익하고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주시요. 9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집결합니다.
4. **선물** : 김준우 목사님(한국기독교연구소)께서 교우 여러분 가정에 월리엄 슬로언 코핀 목사의 저서인 <나는 믿나이다>를 한 권씩 드립니다.
5. **결혼** : 김지현/김지은(장영숙 전도사 2녀)의 결혼식이 5월 12일(토) 오후 6시 30분에 웨딩코리아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축하합니다.
6. **신앙실천** :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 식당 봉사 : 베다니 속

\* 토요봉사(12일) : 이춘희 최희영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윤여민 (생일), 이동천(아버님5주기),

하현철(생일), 이증자 김창경(결혼기념일)

< 새교우 소개 >

2720 안승혜 소속: 청년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